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이병규**

〈목 차〉

머리말

I. 1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II. 2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III.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성격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임피·옥구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초기과정에서 옥구, 임피,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1894년 6월부터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0월까지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은 군산진을 장악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세(收稅) 활동을 하기도 하고 배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는 등 군산진은 완전히 동학농민군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군산진에 대해 최건수를 군산첨사로 임명하여 조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최건수는 군기와 아전을 점고하고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그는 성하영의 진압부대를 통해 군산진을 동학농민군으로부터 회복하고,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해 수성군 조직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피지역은 세 지역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김해룡과 김문화가 대표적인 지도자로 이들은 2차 봉기 과정에서 임피 북일면 성동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옥구지역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진호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구관아에서 처형되었으며, 최증여 역시 전주감영에서 처형되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 군산, 임피, 옥구, 문규선, 최건수

머리말

현재 군산시는 1894년 당시에는 옥구현, 임피현이 있었고 군사기구로서 군산진이 있었다. 군산지역이라 하면 옥구, 임피, 군산진을 포함한다. 옥구현은 군산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하며 만경과 서해를 접하는 지역이다. 서쪽으로는 서해와 고군산군도를 접하고 남쪽으로는 만경강 넘어 김제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임피, 익산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군산진과 접하는 지역이다. 임피현은 군산의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익산, 함열, 함라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강과 강 건너 서천군 한산면과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군산진, 남쪽으로 옥구현과 접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9년 5월 ‘군산 동학에 몰들다’¹⁾라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9년 5월, 『군산 동학에 몰들다』(특별전시 도록).

특별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같은 해 5월 18일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면서부터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작고하신 고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군산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주셨고, 이어서 필자가 ‘동학농민군, 새로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이 ‘동학농민군, 군산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 전시와 특별세미나를 통해 군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었다. 김중규 관장은 특히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새롭게 정리하여 『동학학보』(51호, 2019년)에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²⁾이라는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군산진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고문서가 발견되었다.³⁾

2)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3)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894년 전후 군산진 관련 고문서는 다음과 같다.

「行群山鎭水軍節制使馳報」, 1894.12.

「群山鎭水軍節制使牒報」, 1895.8.

「鄉所列名記」, 1894.11.

「奴今番記」, 1895.1.

「匪類囚徒記」, 1895.2.

「全羅右道群山守城軍座目」, 1895.

「軍器汁物點關記」, 1894.10.

「守城軍名單」, 1894.10.

「吏校番記」, 1894.10.

「各里明記」, 1895.1.

「群山各里明記」, 1894.10.

「人吏番把任記」, 1895.3.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1894.

「최건수 군산첨사 도입 문서」, 1894.

「訓令(群山)」, 1895.

「군산진 첩매 관련문서」, 1895.

「甘結(群山)」, 1895.2.



〈그림 1〉 군산지역 지도(군산진, 옥구현, 임피현)

그러나 이후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동안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이 군산을 경유하는 과정, 2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진·임피현·옥구현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 그리고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성격 등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I. 1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군산지역에서 동학교도의 활동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군산시사』에 의하면 옥구현 대접주 정경화가 1893년 보은 집회 때 참

「군산진 첩사 보고」, 1895.

여했으며, 장원경(1866년생)이 1893년 입도했으며, 허공집(1864년생)이 동학에 입도해서 접주, 교장의 직을 역임했으며, 오시옥(1857년생)이 1894년 입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이를 통해 볼 때 대체로 1893년 전후에서 동학이 전파되고 동학교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차 봉기과정에서 군산지역의 농민군의 활동은 옥구에서 허진이 백산봉기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동학사』와 『천도교회사초고』에서 확인된다.

(1894년)東學軍이 古阜城을 陷落한後 白山에 도라와 陣을 치고 再度의 檄文을 發한 後로 南一帶는 勿論이오 全朝鮮江山이 古阜白山을 中心으로 하고 흔들흔들 하였었다. 이때 전후로 모혀든 將領級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總括的으로써 檢閱하여 보면 …… 沃溝에 許鎭이오 萬頃에 陳禹範이오 …… 여러 사람이 각기 軍長이 되었었고 …… 5)

(1894년) 三月에 全瑋準이 또한 除暴救民의 策으로써 古阜郡 馬項里에서 起包하여 …… 是時에 …… 許鎭은 沃溝에서 起包하다⁶⁾

이와 함께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이 1차봉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은 「전라도고부민란시초(全羅道古阜民亂始初)」 전문이다.

전라도 고부민란시초[全羅道古阜民亂始初]

고부 군수(古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이 국령(國令)을 칭탁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리기를, “크게 백성을 모아 구막보(九幕洑, 만석 보)를

4)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1,038쪽.

5) 오지영, 1940, 『東學史』, 아세아문화사, 1979, 112~113쪽.

6) 天道敎中央總部, 1920, 『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 1, 亞細亞文化社, 1979, 455~456쪽).

쌓아라.” 하니 백성들이 모두 명령을 따라 이 보를 쌓았다. 전답이 수천 석이었는데 각 마지기마다 조세 5두(斗)를 거두어 수천 석이 된 것이다. 몰래 전운사(轉運使, 조필영)와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랐다.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국세(王稅)를 내는 논이라도 기경(起耕)한 지 삼 년 뒤에 세포(稅布)를 바치는 법인데, 올해 보를 쌓게 하고 조세 5두를 거두어 가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온 읍(邑)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로 상소하였는데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민란이 일어난 것인데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 [狀頭]이 전녹두(全綠斗)이다. 이 사람은 동학도에 도통해 조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장두(狀頭)가 된 것이다. 우리 군의 군수[本倅] 병갑이 한양으로 도주하였다. 이 일이 보고되자 임금께서 조병갑을 종루(鐘樓) 거리에서 결장(決杖)하고 화침(火針)을 놓았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박원갑(朴元甲)을 패초(牌招)하여 고부 군수에 제수(除授)할 것을 명하였다.

부임한 지 3일 뒤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너희들이 억울해하는 점을 내 응당 다 풀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기에 농업으로 돌아갔다. 조정에서 고부군의 일을 자세히 알고자 해서 장흥 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를 고부군 안행사(古阜郡按察使)로 보냈다. 전라 감영(全羅監營)에 도착해 감사(監使, 使는 시의 오류)와 사건에 대해 말을 주고받은 뒤 고부민란을 일으키고 선동했던 8인을 압송하여 엄히 주리를 틀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전녹두가 몰래 동학도 수천 명을 모아 전라 감영에 이르니 감영의 영사(營使)가 앞에 닥친 일을 두려워하여 풀어 주었다.

전녹두가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3월 초에 부안읍에 들어가니 부안 수령이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자 이상의 동학도들이 텅 빈 이 기회를 틈타 병장기를 수탈한 뒤 연이어 옥구(玉溝)·태안(泰安)·고부 등 읍의 병장기를 탈취하고서 고부군 뒤편 두등산(頭嶝山)에 진을 쳤다. 전라도 관찰사가 이 일을 듣고 상장군(上將軍) 이재섭(李再燮)과 부장군(副將軍) 송사천(宋泗川)에게 위임하였다. 사천은 전라 좌우도(全羅左右道) 보부상[左右商]의 도반수(都班首)이다. 임소(任所)의 사람 수만 명을 불러와 일시에 전라 감영의 병장기로 무장하고서 두등산의 앞에 있는 낮은 산(案山)에 도달해 녹두의 진영을 살펴보니 군중의 깃발과 검극(劍戟)이 눈서리처럼

엄하였다.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수차례 싸움을 걸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 적진에 격문을 보내니, “상장군 정일창(鄭一昌)의 나이는 14세이고, 부장 전녹두의 나이는 30세이며, 말장(末將) 이일해(李一解)의 나이는 30세이고, 모사(謀士) 노성범(盧聖凡)의 나이는 40세이다.” 라고 격문에 답을 해 왔다. 송 사천이 군정(軍丁)을 거느리고 두등산에 오르니 때가 황혼이 되었다. 정일창이 장검으로 지휘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송 사천이 적의 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재섭과 도망치니 대군(大軍) 가운데 죽은 사람을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적장(賊將)이 전라 감영의 병장기를 빼앗으니 7개 고을의 병장기가 탈취당했다. 그 가운데 몰래 숨은 병졸이 요행히 몸을 피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죽은 사람이 산처럼 쌓여 있고 흐르는 피가 천(川)을 이루고 있었다. 상장군 이재섭이 돌아와 군졸(軍卒)을 점고(點考)해 보니 죽은 사람이 914명이었다.

일이 임금께 보고되자 대대적으로 경군(京軍)을 보냈다. 상장군 홍재희(洪在熙), 부장 이 대인(李大人) 말장 김 대인(金大人)이 병대(兵隊) 500명과 청나라 병사 300명과 대포 12문(車)을 거느리고 전라 감영에 이르렀다. 판관(判官)이 수항(藪港)으로 나와 대군의 행차를 영접했다. 흑자가 이르기를 “4월 초10일에 고부군으로 떠났다.” 하였다.

완영에서 기록하다.7)

7) 「全羅道古阜民亂始初」

全羅道古阜民亂始初 古阜郡守趙秉甲，稱以國令，招致百姓行令曰，防[九]幕狀，民皆從令防此狀。畚庫則數千石也，每斗落五斗租收稅，爲數千石也。暗與轉運道分食之由，民怨孜孜曰：“雖王稅起耕，三年後收稅布，當年防狀，五斗租收稅，極爲冤抑之由。”一邑冤聲仰訴，而事不歸正，民亂蜂起，狀頭則全泉斗也。此人則東學道通，造化無窮，故爲其狀頭也。本倅秉甲，逃走上京，事聞上趙秉甲鐘樓決杖與火針。牌招廣州朴元甲，命除授古阜郡守。到任三日後，招致萬百姓曰：“汝矣所冤，吾當盡雪矣，勿慮”云。故各歸農業矣。自朝家欲詳知古阜事，使長興府使，送古阜按覈使。到全營與首監使酬酌後，押上古阜民亂起鼓八人，嚴牢刑囚獄。全泉斗暗聚渠黨數千人，到底全營，則營使畏其當頭事放送。全泉斗率其黨數千名，三月初入扶安邑，扶安倅暫爲避身，右東學黨乘此空虛，奪去軍器後，連以玉溝·泰安·古阜等邑軍器奪取，而屯陣于古阜後頭嶺山。完伯聞此，寄上將軍李再變副將軍宋泗川，泗川則全羅左右道左右商都班首也，招致任所之人數萬名，一時發全營軍器，到古阜郡，屯陳頭嶺案山，望泉斗陣，旗幟劍戟，嚴如霜雪。不勝憤激，數挑戰，日已暮矣。馳檄敵陣，上將軍鄭一昌年十四，副將全泉斗年三十，末將李一解年三十，謀士盧聖凡年四十，

「전라도고부민란시초」는 고부봉기 직후 전라감영에서 ‘고부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이후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와 황토현전투 그리고 초토사 홍계훈의 진압군 파견 등에 대해 작성한 문서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병갑 후임으로 임명된 박원명을 박원갑이라고 기록하거나 태인을 태안으로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록의 오류가 많다. 특히 군산지역과 관련해서는 “전죽두가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3월 초에 부안읍에 들어가니 부안 수령이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자 이상의 동학도들이 텅 빈 이 기회를 틈타 병장기를 수탈한 뒤 연이어 옥구(玉溝)·태안(泰安)·고부 등 읍의 병장기를 탈취하고서 고부군 뒤편 두등산(頭燈山)에 진을 쳤다.”라고 하여 전봉준이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부안읍에 들어갔고, 이어서 동학도들이 옥구, 태안, 고부의 병장기를 탈취하여 두등산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안은 태인의 오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옥구는 군산지역의 옥구라고 보기 어렵다. 한자도 옥구(沃溝)와 옥구(玉溝)로 다르다. 당시 농민군의 이동 동선 상 백리 이상 떨어진 옥구에서 병장기를 탈취하여 두등산(고부에 있는 두승산으로 추정됨)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는 옥구는 고부인근 지역의 지명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군산, 옥구, 임피)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학사』나 『천도 교회사 초고』에 허진이 옥구를 대표해서 활동했다고 하지만 이후 2차 봉기 과정에서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허진과 세력을 형성하여 활동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임피지역에서도 활동한 인물이

以此答檄，故宋泗川率軍丁登頭燈山，時也黃昏，鄭一昌揮長劍，宋泗川不當敵勢，與李再燮逃去，則大軍中死者，不可勝數，賊將奪去全營軍器，則七邑軍器奪去也。其中隱匿之卒，僥幸避身，舉眼視之，死者如山，流血成川。上將軍李再燮，歸點軍卒則，死者九百十四名。事聞上大發京軍，上將軍洪在熙，副將李大入，末將金大人，率兵隊五百名·清兵三百名·大炮十二車，抵到全羅道營，判官出于藪港，迎接大軍行次，或云四月初十日，發行古阜云。完營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면 1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군산, 옥구, 임피)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허진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1896년 최시형이 손병희에게 도호를 주었고, 시찰할 때 허진이 최시형을 찾아 뵙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여겨진다. 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허진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포덕 37년(1896) 병신(丙申) 정월 5일에 신사가 손병희의 의절(義節)을 매우 칭찬하여 도호(道號)를 의암(義菴)이라 주시고 몰래 의암으로 하여금 충주에 가서 도유의 향배를 시찰케 하시다. 이때 호남도인 박치경(朴致景), 허진(許鎭), 장경화(張景化), 조동현(趙東賢), 양기용(梁琦容)이 신사를 찾아뵙다.⁸⁾

한편 군산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과정에서 진압군의 이동로이기도 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지자 고종은 1894년 4월 2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고 진압군을 내려 보냈다.

고종 31년 4월 2일,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에서 온 전보를 연이어 보건대, 동학(東學) 무리의 정형이 갈수록 더욱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홍계훈(洪啓薰)을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로 차하(差下)하고 장위영(壯衛營)의 병정(兵丁) 몇 대(隊)를 임시로 품지(稟旨)하여 거느리게 하고 윤선(輪船)을 오늘 중에 내려 보내어 진압하고 쓸어버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⁹⁾

이때 고종은 홍계훈에게 밀부유서를 주어 군사에 대한 권한을 명확

8) 『천도교서』, 제2편 해월신사편.

9) 『고종실록』, 고종 31년 4월 2일.

하게 해 주었다.¹⁰⁾ 그런데 이들이 바로 군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홍계훈이 이끄는 양호초토군이 군산을 거쳐 전주까지 이르는 과정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토사는 이달 4일 申時에 仁川港에서 輪船을 타고 출발하고, 隊官 李斗璜은 1隊의 병정들을 인솔하고 漢陽船을 타고 가서 5일 申時에 군산포에 먼저 도착했고, 隊官 元世祿은 1대의 병정을 인솔하고 蒼龍船에 탑승하여 戌時에 군산포에 도착하였으며, 臣은 3대의 병정을 인솔하여 중국의 兵船 平遠號를 탔는데, 이달 4일 酉時에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으나 수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닻을 내려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은 자욱한 안개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일찍 떠나지 못하고 안개가 개기를 기다렸다가 배를 운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酉時에 겨우 群山鎮의 外洋에 도착하였으나, 兵艦의 船體는 크고 물은 매우 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닻을 내리고, 다시 蒼龍號와 漢陽號 두 선박에 병정들을 나누어 태우고 6일 申時경 군산포에 도착하여 상륙한 즉시 전주로 갔었습니다.¹¹⁾

10) 「홍계훈밀부유서」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에게 내린 유서(1894년 4월 2일)

승정대부(崇政大夫)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정령관(正領官)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에게 교유(教諭)함[諭崇政大夫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洪啓薰] 경이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에 관한 일을 위임받았으니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릇 병사를 출동시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일체 평상시 사안은 자연히 옛 법도가 있다. 그러나 혹여 내가 경과 독단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또 뜻밖의 간사한 계락을 예방하지 않아선 안 되니 만약 비상한 명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뒤에야 응당 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압(御押) 을 찍은 제38 밀부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교유한다. 광서(光緒) 20년(1894, 고종31) 4월 초2일

諭崇政大夫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洪啓薰

卿受委兩湖，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爲。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三十八符，卿其受之。故諭。光緒二十年四月初二日。

이 자료에 따르면 4월 2일 임명된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4일 신시(15~17)에 인천항을 출발하였는데, 대관 이두황은 한양호를 타고 5일 신시(15~17)에 군산포에 도착하였고, 대관 원세록은 창룡호를 타고 술시(19시~21)에 군산포에 도착하였으며 홍계훈은 중국 병선 평원호를 타고 4일 유시(17~19)에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으나 수로를 알지 못하여 닻을 내려 하룻밤을 지내고 5일 유시(17-19)에 군산진의 외양에 도착하였다. 결국 이들은 6일 신시(15~17)에 군산포에 도착하여 상륙하였고, 이후 바로 전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때 홍계훈의 진압군이 전주로 이동할 때 군산진에서 물자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작년 4월에 경영대군이 본진으로부터 감영으로 행진할 때에 영문의 감결에 따라서 군대에서 필요한 문건을 수송하기 위해 전주부집꾼과 우마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무른 지가 몇날 몇일이 되어서 식비 전 65량 9전을 그들이 올린 발괄문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해당 관청에 여러 차례 이문을 보내 재촉하였으나 해가 지나도 보내지 않으니 보고한 바에 따라 즉시 감독하여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¹²⁾

이때 홍계훈의 진압군이 전주로 이동할 때 군산진에서 물자를 제공하였고, 추후 이를 받기로 하였으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이행되지 않아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산 백성들이 경병의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1) 국사편찬위원회, 199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2) 「군산진 첩사보고」, 189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II. 2차 봉기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 시기의 경우, 군산진, 임피, 옥구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여겨 볼 지역은 바로 군산진이다. 군산진은 별도의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첨사가 파견되어 별도의 행정구역과 같이 운영되었고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1. 군산진

군산진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2월 22일 [同日]

출진한 서산군수가 보고합니다. 이번에 서천과 한산에서 적을 격파한 후에 흩어진 나머지 무리들이 곳곳에 숨었기 때문에 여러 날 순행하여 뒤쫓아 체포한 자가 자못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진(群山鎭)이 땅은 비록 전라도의 경계에 있으나 다만 본도로부터 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듣자니 흩어져 도망한 적들이 그곳 진으로 달아나 모여서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 부대가 떠난 후에 다시 서천·한산으로 침입할 염려가 없지 않은 듯하여, 지난 달 29일 서천 송동리(松洞里)로부터 한산 지호(芝湖)에 이르는 길로 행군하여 한산 두문리(斗文里)를 지나갔습니다. 이 마을은 곧 지난날 비류들이 모여 있던 곳이라 200여 호가 불에 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근심스럽고 참담하였으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길을 막고 통곡하며 하소연하는데 그 떠도는 상황을 보자니 참으로 가슴이 아

팠습니다.

그 이튿날 그믐에 바다를 건너 즉시 군산(群山)쪽으로 30리를 가니 비류가 이미 먼저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대를 주둔하고 뒤쫓아 정탐하니 온 진《군산진》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특함에 몰들어 비류의 거괴와 한통속이 되어 방비한다는 핑계로 그곳 진의 무기를 빼앗아 가서 아전과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배는 그 용도의 공사를 막론하고 내왕할 때에 총을 쏘아 배를 대도록 강요하여 곡식이건 물건이건 모두 다 탈취해 진의 창고에 쌓아 두고, 용도에 따라 출납할 때는 책자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는 것이 마치 거만하게 관부의 문서와 같이 하였습니다.

탄환·깃발 등의 물건을 숨겨 놓은 것도 또한 많아서 낱낱이 수색하여 거두어들였으며, 군수 물건으로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얼마간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창고에 저장해 둔 쌀과 콩은 숫자를 밝혀 모두 기록하고 그곳 진의 첨사 최건수(崔建壽)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비류들의 미곡 지출 장부 1건, 돈과 재물의 출납부 1건, 군수 물건 지급 장부 1건, 진 공형의 다짐[考音] 2건을 모두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 진의 문규선(文圭璇)은 10년 가까이나 오랫동안 동도에게 물든 자이기 때문에 곡식 담당의 박가(朴哥), 염초 담당의 최가(崔哥), 도포수(都砲手) 문가(文哥) 등과 같이 네 놈을 함께 잡아서 조사하여 총살하였습니다.¹³⁾

이 자료는 서산군수 성하영이 군산진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고 보고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군산진의 아전과 백성들이 동학농민군과 한통속이 되어 무기로 무장하고, 배가 왕래할 때 총을 쏘아 배를 대도록 강요하고 곡식과 물건을 탈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들이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¹⁴⁾이 동학농민군들과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

13)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2일.

1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중에서 문규선과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성하영은 문규선과 이러한 활동을 함께 했던 곡식 담당 박가(朴哥), 염초 담당 최가(崔哥), 도포수(都砲手) 문가(文哥) 등 4명을 총살하였다고 한다. 성하영이 이렇게 급박하게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을 총살한 것은 그만큼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강력하였으며 이들이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최건수가 군산첨사로 부임한 이후에 군산진의 상황을 정리한 문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첨사가 1894년 10월 22일 도입하여 관속들을 불러 동학의 작폐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하기를 5월까지의 동학의 명색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6월 이후에 각처에서 동학이 등장하여 다른 사람의 무덤을 굴충하기도 하고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개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지켜내기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 즉 6월 이후 군산진에서 급속하게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확장되어 군산진을 장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군산진의 첨사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좌수를 비롯한 아전들이 첨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깊이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이다. 즉 아전들이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곡식창고를 장악

고문서가 있다.

「甲午十一月日 鄉所列名記」

鄉長 高啓春

執綱 田大昌

座首 文周善

別監 高興用

群山

原

行使(압)

여기에 나오는 문주선이 문규선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 15) 「僉使今十月二十二日到任」, 僉使今十月二十二日到任後招致鎮屬先問東學之作弊皆曰本鎮今五月轉運所中撤以前初無東學名色矣忽於六月日各處東都課日來侵勒掘人塚橫奪家山箇箇人不得支保雖欲散使作網羅乾坤無所歸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문서.

하고 있었다. 이시기 군산진은 완전히 동학농민군이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최건수를 군산첨사로 임명하였다.¹⁶⁾ 이때가 1894년 9월 22일이다. 그러나 최건수가 바로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실제 최건수가 부임한 것은 10월 22일이다. 최건수 군산첨사는 부임한 다음 날인 10월 23일 바로 군산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군기를 점고하여 기록해 놓았다. 이는 최건수가 첨사로서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군산진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 十月 二十三日 軍器汁物點閱記

鳥銃 37柄

鐵身 3柄

鐵槍 23柄

令旗 2箇

破傷皮甲 5걸

木道里打 1箇

長箭 20部

大碗口 1箇

大鐵丸 10箇

破傷木弓 10張

破傷頭凱 9箇

大將軍箭 14箇

無匣環刀 2柄

行使(압) 17)

16) 『고종실록』 고종 31년 9월 18일.

17) 「軍器汁物點閱記」, 1894.1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문서.

최건수는 이와 함께 각 아전에 대해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전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동학농민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이상 아전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甲午十月 日 吏校番記

吏房 車共洛

戶房色

軍器色

貿販色 一邊 車鳳仁

禮房

兵房色

貿販色一邊

烽燧色

民庫色 徐文燮

首刑吏 車斗勳

工房色

戰船色

上南書員

均役色 車碩九

18) 「吏校番記」, 1894.1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都書員 全炳植

下南書員

結錢色 林俊桓

承發

傳關色 車文玉

原

執事 金日瓚¹⁹⁾

이어서 11월에는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아래 문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최건수 군산첨사와 연관성이 있는 문서로, 시기적으로 1894년 11월에 작성되었다. 문서의 내용은 도회장을 정하고 마을별로 책임자로서 회장이 기록되어 있다. 진내의 방수장이란 표현을 통해 볼 때 최건수가 첨사가 된 후에 동학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수성군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甲午十一月 日

都會長 金商坤

鎮內會長 崔斗任

防守將 徐用淳

上南面會長 田大煜

下南面會長 高明得

19) 「吏校番記」, 1894.1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竹城里會長 洪寬弼
 京浦里會長 安正信
 五龍洞會長 田大鉉
 算項里會長 高午順
 石峙里會長 金顯聲
 新豐一里會長 高致成
 二里會長 田溶宜
 沼隴里會長 權用杓
 沙場里會長 文圭鳳
 羅雲里會長 高萬興
 井星里會長 李永培
 富興里會長 李允永
 大田里會長 李圭桓
 白土里會長 文章弘
 築洞里會長 文振錫
 屯栗一里會長 崔春五
 二里會長 安子順
 鉢山里會長 田昌裕
 京場里會長 朴允淑
 新興里會長 金才權
 弓乙里會長 金俊文
 行使 20)

이렇게 수성군을 조직한 후에 성하영 서산군수가 이끄는 진압군이 군산에 들어오도록 하여 좌수 문규선 등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것으로

20) 「수성군 명단」, 1894.1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보인다. 즉 최건수 첨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최건수 첨사는 1895년 2월에 다시 한번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1894년 11월 도회장이었던 김상곤이 이때는 수성장으로서 역시 책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전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커졌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데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乙未二月 日 守城郡番記

守城將 金商坤

左統領 朴正守

右統領 徐用淳

一番長 金基周

二番長 車能轍

一番

番長 金基周

車升安, 金應必, 李光瑞, 金奉瑀, 車斗容, 車斗奉, 金興祚, 李文圭, 徐相文, 金成贊,

金文燦, 車逸泰, 金永八, 林學祚, 車文玉, 車振軾, 車文樂, 金宜春, 李文坐, 金東生,

申千五, 金喜豐, 權池同, 陳俊己, 文奉汝, 李士成, 崔德甫

二番

番長 車能鐵

趙式京, 徐相浩, 朴乃守, 車斗煥, 朴亨仲, 金成燦, 趙俊明, 林啓玄, 車宗伯, 李采德,

金學先, 崔升祚, 金尙模, 金宜仁, 金吉用, 崔達安, 車孟述, 丁致云, 俞會俊, 朴完根,

李君培, 車億日, 權京祚, 車宗必, 李德敏, 金泰燦, 金采允

行使 (압)

全羅道群山守城郡座目

1895년 2월 군산첨사 최건수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군산진수성군좌목(全羅道群山守城郡座目)」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군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군산진의 행정조직과 함께 군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乙未 二月日 匪類囚徒記

京浦 金士元

安德良

石峙 金應方

金學水 次知其子 從來

新豐 田斗容 次知三寸 俊汝

田行先

臨陂 梁哥

群山京浦²¹⁾

이 문서는 1894년 2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다. 경포, 석치, 신평, 임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들은 체포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바로 이때 조직된 수성군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匪類囚徒記」, 1895.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전곽산군수 최건수는 본래 노련하였다. 전에 동학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특별히 군산첨사로 제수되어 10달간 군산첨사로 있으면서 맑은 덕과 위엄있는 믿음으로 다스렸다. 비도를 정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여 모든 군산진이 편안해져 사방에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한 軍器가 하나도 잃은 바가 없었다. 그런데 군산진이 폐기되어 해임되자 이민들이 길가에 나와 통곡하기를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하였다. 그 치적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제 사람을 택할 때 이러한 충신을 발굴한다면 어찌 모자람이 있으리오. 바라옵건데 살펴 주십시오²²⁾

이 문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작성 시기는 대략 1895년 9월 전후로 추정된다. 이때 군산진이 철폐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 문서를 통해 볼 때 최건수가 동학농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군산진을 회복하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후 군산진을 잘 운영해나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군산진이 철폐되자 이민들이 이를 대단히 아쉽게 여기고 그들의 의견을 상부에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군산진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훨씬 이전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1894년 1차 봉기 과정에서는 크게 활동하지 않았다. 1차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이 승리하고 그 세력이 강성해지자 1894년 6월 이후 크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좌수 문규선과 아전세력은 동학농민군에 적극 가담하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세 하기도 하고 배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인근의 동학농민군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그리

22)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前郭山郡守崔建壽素以老鍊在昔東擾時時除爲群山僉使在鎮十朔以清德威信爲治戡定匪徒撫恤貧歎一鎮 賴安四鏡誦碑支如軍器一無所失矣及其罷鎮解任吏民擁路號哭如失慈母其治蹟推次可知見今公道擇人之時屈此赤忠之材則豈非有欠哉 恭希 台照.

고 이 과정에서 군산첨사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조선 정부는 1894년 9월 최건수를 군산첨사로 임명하였고, 한참 후인 10월 22일 최건수가 군산첨사로 부임하여 활동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최건수는 부임하자마자 군기를 점고하였고 아전을 점고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세력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갔던 것이다. 이어서 1894년 11월 수성군을 조직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11월 말 서산군수 성하영이 이끄는 정부 진압군이 문규선 등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최건수 군산첨사는 을미년에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수성군을 재정비하고 직접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결국 군산진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끝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이 군산진을 장악한 기간은 189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정도이다.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1894년이란 격동의 시기에 시시각각으로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다시 상황이 바뀌어 동학농민군이 크게 토벌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군산진의 상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변화는 매우 급변했으며 안정된 사회의 관점으로는 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정의 시기와 변화의 시기는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만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바로 1894년 군산진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즉 기록된 내용은 매우 소략하고 짧지만 1894년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5개월의 기간은 역사 속에서 짧고 희미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역사 속에서는 패자로 반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진정한 역사 속의 진실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임피현

임피지역은 세 지역 중 농민군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임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임피현령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894년 9월 17일)

아뢰기를, “호남의 비도들이 곳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전후로 무기를 잃어버린 수령과 진장(鎭將)으로서, 관찰사의 계사에서 처벌을 요청한 자가 29명이나 됩니다. 평소에 엄히 단속하고 방어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道) 전체가 소란스러운 이때에 처벌하는 동안 각 고을과 진(鎭)의 업무가 방치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임실 현감(任實 縣監) 민충식(閔忠植)·임피 현령(臨陂 縣令) 송순혁(宋淳爨)·동북 현감(同福 縣監) 유치성(兪致誠)·무안 현감(務安 縣監) 이증익(李重益)·옥과 현감(玉果 縣監) 홍우석(洪祐奭)·흥양 현감(興陽 縣監) 조시영(曹始永)·익산 군수(益山 郡守) 정원성(鄭元成)·화순 현감(和順 縣監) 민영석(閔泳奭)·용안 현감(龍安 縣監) 민진호(閔進鎬)·법성 첨사(法聖 僉使) 권인하(權寅夏)·격포 첨사(格浦 僉使) 유협(柳) 등은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고,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해남) 이규환(李圭桓)은 전에 이미 문비(問備)하였으므로, 지금은 잠시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²³⁾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 고을과 진의 업무가 방치될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 임피 현령 송순익 등은 이미 죄가 있지만 상황이 급박하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피지역에서의 동학농민군

23) 『啟草存案』, 1894년 9월 17일.

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수령인 임피현령 송순혁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봉기 과정에서 임피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유원술, 김상철, 진관삼, 홍경식, 최순봉 등이다.

(1894년) 十月에 京畿道砥平郡 孟英在 …… 是時에 湖南道人이 海月神師의 命敎에 依하여 全捧準으로 더불어 起包치 아니하였던 者 또한 四方에서 起包하니 …… 臨陂 劉原述, 金相喆, 陳寬三, 洪敬植, 崔順奉²⁴⁾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학·천도교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피지역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한 동학농민군 중의 하나가 바로 김해룡이다.

출진서산군수가 첩보합니다.(개국 503년 11월 22일)

서산(瑞山)과 한산(韓山)의 경계에서 적을 격파한 사유는 어제 이미 치보(馳報)하였거니와, 한산의 역촌(驛村)에서 21일 묘시(卯時, 오전 5~7시) 무렵에 내산(內山), 외산(外山), 길산(吉山) 등지로 행군하여 서천 경계에 이르러 여당(餘黨)으로서 김제(金堤)에 사는 강명선(姜明善) 등 7명과 대기수(大旗手)라는 명색의 4명을 뒤쫓아 붙잡아서 모조리 즉시 총살하였고, 이어 한산읍의 신아포(新牙浦)로 향하여 강을 건너 달아나던 임피(臨陂)의 적 김해룡(金海龍) 등 7명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그대로 신아포에 유진(留陣)하였습니다.²⁵⁾

충청도와 전라도 접경지역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주도했던 서산군수 성하영이 1894년 11월 21일 한산읍의 신아포로 향하여 강을 건너던

24) 『天道教會史草稿』, 天道教中央總部, 1920, 『東學思想資料集』 1, 亞細亞文化社, 1979, 462~465쪽.

25) 『순무사정보첩』, 1894년 11월 22일.

임피의 동학농민군 김해룡 등 7명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즉 김해룡이 임피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김해룡은 임피를 근거지로 하면서 충청도 지역까지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임피지역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접주인 김문화이다. 『미나미고시로 문서』의 「고도정의 문보」를 통해 접주 김문화가 임피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임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다.

고도정의 문보

임피 북일면 성동의 탁지대신택 산지기 고도정이 문보합니다. 본동의 접주 김문화는 동학의 괴수라고 일컬으면서 한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습니다. 도정은 7월에 그의 행패를 견디기 어려워 집을 버리고 달아나 숨어 버려 저희 집은 회소(會所)가 되었습니다. 본동의 잔민(殘民) 들에게는 세미를 어느 명목으로든 두세 번이나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거주민들이 대부분 유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연변에 오가는 배들을 마음대로 붙잡아 들었으며, 장사꾼의 전곡을 무수하게 탈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정은 다만 이 형편을 틈타 곧장 본동으로 들어가 이달 25일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즈음에 마을 앞에 불을 지르고 동 성동리의 접주 김문화를 결박하고 불에 던져 곧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놈의 집도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그밖에 무지한 동도(東徒) 거주민으로 구타를 두려워하여 입도(入道)한 자들과, 도박빚을 피하여 걸로만 도를 받드는 체하는 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림자처럼 배도(背道)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문보하오니, 삼가 첩정을 일일이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첩정(右牒呈)

경대장 처분(京大將處分)

1894년 11월 26일 도정 고태홍[서압]²⁶⁾

26) 「고도정의 문보」, 『미나미고시로 문서』
高都政文報

이 문서는 임피 북일면 성동리의 탁지대신택 산지기 고도정(태흥)이 상급기관에 보고한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북일면 성동리의 접주 김문화가 동학의 지도자였고, 그 세력이 매우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정은 동학농민군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 집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도정의 집이 동학농민군의 본거지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고도정이 7월에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는 1894년 7월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동학농민군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미 7월 이전에 세력을 형성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임피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적어도 5~6월 경부터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조직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동학농민군들이 세미를 거두고 배들의 이동하는 것에 관여했으며, 장사꾼들의 상행위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상황이 변하자 그 반대 입장에 있던 고도정이 불을 지르고 접주 김문화를 잡아 죽였던 것이다. 고도정의 문서를 통해 당시 엄혹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접주 김문화가 임피지역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임피 북일면 성동리는 현재 군산시 성산면 지역으로 북쪽에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와 접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임피지역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조직이 남아

臨陔北一面聖洞度支大臣宅山直高都政爲文報事本洞接主金文化稱以東學魁首一村行惡去益甚焉都政則 七月初難堪行惡而擻家逃竄矣家則仍作會所是遭本洞殘民處稅米何等名色是喻再三勒捧居民學皆流離之境是乎乙遭沿邊行船任爲捉入商賈輩錢穀無數奪取故都政乘此勢卽入本洞而今二十五日薄暮村前放火 同聖洞里接主金文化結縛投火卽殺而其漢之家亦衝火是遣其外無知居民東徒畏其毆打入道者避賭錢外樣 奉道之民一併如影背道是乎所等以緣由文報爲臥乎事合竹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京 大 將 處 分

甲午十一月二十六日都政高泰興[署押]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준홍이다. 1900년 동학을 이어받아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받는 중에 그들의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본부 산하 상무사 도장무원(都掌務員) 정인택(鄭寅澤)의 보고서를 접하니
그 안에,

“본사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사원 10명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동학 무리를 체포하려고 각처를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체포해 온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金準弘)·류덕장(柳德長)·김성초(金成初)·장한여(張漢汝)·이치옥(李致玉) 및 고산 용암리(龍巖里)의 이관동(李關東)·이용구(李龍九) 등 일곱 놈이 무리를 모아서 움직이고자 상의하는 정황을 염탐하여 모두 체포하고,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 투서(念珠套罽)와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준홍 등 일곱 놈을 곧바로 압송하게 하고 압수한 물건을 일일이 살펴보니 곧 과연 상무사의 보고에서 나열한 것과 같고, 갑오년(1894)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괴한 흔적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준홍 등 일곱 놈을 본 재판소로 잡아들여 전후 정황과 무리들이 몇 명인가를 엄격히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김준홍이 진술하기를,

“저의 나이가 지금 38세인데 갑오년(1894) 7월에 장경하(張敬夏)에게 동학의 도를 받았으나 장경하가 곧 몇 해 전에 사망하고, 작년 11월 천만뜻밖에 평소 친하지 않던 상주(尙州) 이관동(李關東)이 통문 1통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다른 접(接)의 말을 듣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곧 돌아갔습니다. 금년 정월에 이관동이 고산 등지로 이사할 뜻으로 글이 왔고, 일전에 들으니 이관동이 고산 운남산(雲南山) 아래 용암리에 사는 이용구와 더불어 친분이 있어 그 마을로 이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 이성동(伊成洞)의 김성초(金成初)와 서곡(書谷)의 류덕장(柳德長)과 수하(水下) 신기(新基)의 장한여(張漢汝) 등이, 이관동

이 장차 임피 신정리(新正里)의 김윤국(金允國) 삼길리(三吉里)의 이치옥(李致玉)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김성초·류덕장·장한여 3명이 마침 저의 집에 도착했다가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은진 강경포(江鏡浦)의 류산춘(柳山春)이 이관동의 지휘로 인하여, 올해 4월 초8일에 전주 수하(水下) 배산(益山) 아래 넓은 들판(野地)에서 모임을 갖고 외국인(異國人)의 배척을 도모할 뜻으로 상의하였습니다. 저는 곧 다시 설포한 동학의 새로운 접주가 되었습니다. 산하에 거느린 사람은 고문선 이하 30여 명이며, 다른 무리들은 강경포 류산춘이 거느린 것이 40명이 됩니다. 모여서 일을 같이 꾀한 자는 익산(益山) 의동(蟻洞)의 김경재(金敬裁), 김제(金堤) 남면(南面)의 강문숙(姜文叔), 고부 남면의 홍경삼(洪敬三)과 김명중(金明仲),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仲)과 명중(明仲) 형제로, 이들이 호남 동학 중에 두목(居首)입니다. 또 제가 급하게 무리를 불러 이관동을 찾아갈 뜻으로 저의 집에서 상의하다가 지금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²⁷⁾

임피출신 김준홍은 갑오년(1894년) 7월에 장경하로부터 동학의 도를 받았다. 장경하는 임피지역 동학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준홍은 고문선이 다시 동학을 이어받아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3월 15일 제1호
 법무 전훈(電訓) 안에,
 ‘무주(茂朱) 덕유산(德裕山)의 동학의 남은 무리가 점차 성하여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설이 낭자하게 들리니, 순검을 파견 염탐하여 잡아서 급히 보고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곳에 순검을 파견하여 몰래 염탐하고, 한편으로 해당 군에 훈령을 내리고 비밀리에 신칙하였으나, 지금 이 무리가 종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듣기로 고산(高山), 여산(礪山)과 은진(恩津), 연산(漣山) 등지에 이 무리들 몇 명이 몰래 통하고 서로 만나니 자못 수상하다

27) 『사법품보』,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고 합니다. 기찰을 두지 않고 나타나는 대로 사냥하여 은밀하게 움직여 잡을 뜻으로, 말을 만들어 각 군에 훈칙(訓飭)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또한 다방면으로 정탐할 때 상무사(商務社) 도장무원(都掌務員) 정인택(鄭寅澤)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그 안에,

“본사의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각처를 두루 다니다가 여산 북면(北面) 죽림동(竹林洞)에 사는 고문선(高文詵)이 동학도 중의 유명한 거괴(巨魁)로, 갑오년(1894, 고종31) 동학도의 소요 때에 법망에서 빠져 있다가 지금 또 우리들을 불러 끌어 모으는 정황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집에 도착하여 힘을 써서 체포하여 오고, 그 이른바 ‘전도차첩(傳道差帖)’과 ‘염주투서(念珠套署)’와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향촉(香燭) 등의 도구들과 모임을 약속하는 통문과 주술 부적(呪符)과 경문(經文) 등의 책자와 보자기 1개를 숨겨 놓은 것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문선을 곧바로 압송하여 압수한 물건을 낱낱이 살펴보니 곧 과연 상무사의 보고 중에 나열한 것과 같으니, 갑오년(1894)부터 지금까지 해괴한 흔적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문선을 본 재판소로 잡아들여 전후 정황과 우리들이 몇 명인가를 엄격히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의 나이가 지금 46세인데 본래 전주(全州) 용두치(龍頭峙)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지난 갑오년에 동학에 입도하여 대접주로서 그해 가을에 무리 백여 명을 이끌고 진영(鎭營)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곧 거처를 동헌(東軒) 상방(上房)으로 하고, 본주(本州)의 읍촌(邑村) 각처의 부잣집 [饒富人家]에 포군(砲軍)을 나누어 보내고 재물을 청하는 도움을 구하여, 돈을 혹 20~30냥 혹은 70~80냥을 얻어 와서 접중(接中)에 보태어 썼습니다. 부내(府內)에 백가(白哥)란 자가 있어 도를 매우 훼손한다고 하므로, 진정(鎭庭)에 잡아와서 곤장 30여 대를 때리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백가가 그로 인하여 죽었으며 겨울 사이에 이르러 중앙군(京兵)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허물어져서 흩어졌는데, 저는 곧 도망하여 여산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임피(臨陂) 오성산(五城山) 산막리(山幕里)에 사는 김준회(金俊會)가 와서 말하길, ‘다시 동학을 설(設)하면 실효를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흉(凶)한 것을 피하고 길(吉)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몇 군데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동학을 다시 설할 뜻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권했습니다. 비록 흑시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으나, 또한 흑시 응하여 따르는 자가 있었으므로 단지 기쁘게 따르는 자에게 도를 전하였습니다. 도를 받은 자는 여산 황화정(皇華亭)의 고성화(高成化)·정낙현(鄭洛玄)·정봉술(鄭奉述)·서찬경(徐贊京)·이노돌(李老突)과 고산(高山) 대치리(大峙里)의 김금석(金今石)·김갑동(金甲同)·강윤실(姜潤實)·강완실(姜浣實)·배종갑(裴宗甲)과 은진(恩津) 강경포(江鏡浦)의 류화인(柳化仁) 등이었습니다. 전해 들으니 즉 은진 남산리(南山里)의 손광현(孫光玄)과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中)이 모두 동학의 거물입니다.”²⁸⁾

고문선은 전주 출신으로 갑오년에 동학에 입도하여 대접주로 활동하다가 여산에 숨어지냈다. 그런데 1899년 9월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 사는 김준희가 다시 동학을 설하면 실효를 볼 것이라고 하여 동학을 다시 설할 뜻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권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동학 세력이 모였던 것이다. 즉 임피의 김준희(김준홍)가 고문선에게 동학을 다시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아 김준홍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체포되었던 류덕장은 역시 김준홍의 휘하로 1894년부터 활동을 같이 했으며, 김성초, 장한여 등도 이때 김준홍과 더불어 임피지역에서 동학을 재건하려다가 체포되었다.²⁹⁾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임피지역은 1차 봉기 때는 크게 활동하지 않았지만 이후 시기부터 세력이 성장하여 2차 봉기 과정에서는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충청도 인근지역과 연계하기도 하고 인근의 익산지역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동학을 재건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8) 『사법품보』,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3월 15일 제1호.

29) 『사법품보』,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1900년 4월 2일 제2호.

3. 옥구현

2차 봉기 이후 옥구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옥구현감의 첩보를 통해서 확인된다.

옥구현감이 첩보합니다.

방금 도달된 비밀 감결 내에 ‘비류는 지금 이미 흩어졌고, 거물급 괴수는 반드시 촌리(村閭)에 숨어있을 것이다. 각 당해 면리(面里) 및 연해(沿海) 등처에 각별히 신칙하여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일체 잡아들이고, 유명한 거물급 괴수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接主) 및 비록 협종(脅從)한 자라도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범죄 사실을 알아내어 굳게 가두고 나서 보고해 오며, 이 경우 영(營), 진(鎭), 역(驛), 산성(山城), 목관(牧官)이 있는 곳은 행차(行次)에 매이(枚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왕사(王師 : 官軍)가 지경에 다다라 토벌이 극도로 행해지고 있는데, 비류가 비록 날마다 흩어져 외딴 섬과 궁벽한 골짜기로 도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감히 넓게 쳐진 하늘의 그물에서 새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엄한 감교(甘教)를 받았으니, 별도로 신명(身命)을 아끼고 근간(謹幹)한 이교(吏校)를 선정해서 본현 경내를 면밀히 정탐하여 소위 ‘동도(東徒)의 거물급 괴수와 각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접주 및 협종한 자’들을 나타낸 대로 잡아서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범죄사실을 알아내어 굳게 가두고 난 뒤에 보고할 계획이오며, 본현은 영(營), 진(鎭), 역(驛), 산성(山城), 목관(牧官)이 없기 때문에 매이(枚移)하지 않을 것이니, 그에 대한 연유를 아울러 우선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진에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인) 12일 행현감(行縣監) 김(金) (화압)³⁰⁾

30) 『선봉진정보첩』, 개국 503년 12월 12일.

옥구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으며 이를 옥구현감이 적극적으로 토벌하겠다고 양호순무선봉진에 보고하고 있다. 옥구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허진을 비롯하여 고진호, 최중여, 주성갑, 최두환 등이 확인된다.

고진호는 동학도로서 옥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되어 1895년 2월 옥구현 동헌에서 관군에게 처형되었다. 고진호의 사망일이 1895년 2월 21일임을 『濟州高氏文忠公派譜』(1947)에서 확인된다. 고진호가 옥구 동헌에서 총살당하자 친지들이 수소문 끝에 시신을 수습하여 옥구현 서문 밖으로 옮겨 현재의 군산시 나운동 대전부락 앞산에 묘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묘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³¹⁾ 최중여는 1894년 9월 옥구지역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12월에 체포되어 전주감영에서 사망하였다.³²⁾ 이밖에 옥구지역

31) 고진호 후손 증언

고진호의 증손 고○석은 중학교 1학년 때 조부 고창영(高昌榮, 1889~1971)과 동네 어른들로부터 증조부 고진호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고○석은 바둑을 좋아해서 이것을 배우려고 어른들 계신 곳에 자주 있었고 이때 어른들이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증조부 고진호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고○석의 증조모 담양전씨(潭陽田氏, 1856~1912)는 조부에게 공부를 많이 하면 역적이 되니 이름이나 쓸 줄 알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고진호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집안이 파산되고 조부가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진호는 동학도로서 1894년 옥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누군가의 밀고로 잡혀가 1895년 2월 옥구현 동헌에서 관군에게 처형당하였다. 고진호의 사망일이 1895년 2월 21일임을 『濟州高氏文忠公派譜』(1947)에서 확인된다. 고진호가 옥구동헌에서 총살당하자 친지들이 수소문 끝에 시신을 수습하여 옥구현 서문 밖으로 옮겨 현재의 군산시 나운동 대전부락 앞산에 묘소를 만들었고 이 묘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32) 최중여 후손 증언

최중여의 증손자인 최○환은 15세를 전후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조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부친은 이 사실을 그의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한다. 제적부에는 최중여의 사망일이 1894년 1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중여의 시신수습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으며, 최중여의 묘소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한다. 최중여의 제사는 제적부에 나와 있는 12월 10일을 근거

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수접주로 활동한 주성갑³³⁾이 있으며, 1894년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최두환³⁴⁾ 등이 있다.

III.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성격

이상에서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임피현, 옥구현, 군산진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옥구현, 임피현, 군산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각각 구별되

로 하였으며, 제사는 최중여의 장손이 모시다가 문증으로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1900년 6월에 천도교에서 발행한 경통(敬通)에는 최운철이 이웃에 살던 천도교인 노춘만, 최태경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옥구에서 동네사람의 집 수리 중 벽에서 천도교 및 항일운동관련 자료가 다수 나왔으며, 여기에 최중여의 아들 최운철의 천도교 및 항일운동 관련 기록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최운철이 노춘만 등과 항일운동을 한 사실은 『전북지방애국지사약전』(광복회 전북지회, 1983, 20쪽)에도 기록되어 있다. 최운철은 최중여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천도교 줄포 교구장을 역임하는 등 천도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1977년 최금풍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최운철이 그의 부친 최중여의 인도로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현재 최○환의 집안에서는 최○환(천도교 선도사, 道號 知菴)과 조카 2명이 천도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33) 『天道教會月報』 184(天道教中央總部, 1926년 4월호, 43쪽)에서 “還元一束 …… 金成樺氏 氏は 沃溝郡羅浦面江亭里人이니 故朱聖甲氏夫人이라 朱氏는 本來甲午에 首接主로 東學亂에 指目이 太多함으로 沃溝로 避身하야 居生하다 信教如一하던 中 十餘前에 還元하고 ……”와 같이 주성갑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이 확인된다.

34) 『天道教會月報』 184(天道教中央總部, 1926년 4월호, 43쪽)에서 “還元一束 …… 崔斗煥氏 氏は 沃溝郡臨陂面成山里人이라. 布德三十五年(1894)七月一日에 入教하야 原職은 接主와 奉訓을 經하고 …… 不幸이 布德六十七年(1926)三月二十一日에 還元하다 ……”와 같이 최두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이 확인된다.

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1차 봉기 과정에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옥구지역에서 허진이 백산봉기에 참여하였다고 『동학사』에 기록되어 있으나 허진은 이후 2차 봉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1차 봉기 과정에서는 군산지역 옥구, 임피, 군산진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2차 봉기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지역은 바로 군산진이다. 그동안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은 1894년 6월부터 10월까지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세하기도 하고 배의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는 등 군산진은 전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동학농민군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들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1894년이란 격동의 시기에 시시각각으로 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다시 상황이 바뀌어 농민군이 크게 토벌당하기도 하다는 것을 군산진의 상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변화는 매우 급변했으며 안정된 사회의 관점으로는 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정의 시기와 변화의 시기는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만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바로 1894년 군산진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즉 기록된 내용은 매우 소략하고 짧지만 1894년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5개월의 기간은 역사 속에서 짧고 희미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역사 속에서는 패자로 반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넷째,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군산진을 최건수라는 군산첨사를 임명하여 조직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군산첨사로 임명된 최건수는 군기와 아전을 점고하고 이어서 수성군을 조직하였으며 성하영의 진압

부대를 통해 군산진을 동학농민군으로부터 회복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수성군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조선정부의 기강이 매우 해이해져 있었지만 한편으로 조선 정부의 조직이 어떤 면에서는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건수가 군산첨사로 임명된 이후 군산진의 기능은 급속하게 회복되었다. 이 때문에 특히 문규선 등 동학농민군이 군산진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은 거의 기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섯째, 임피지역은 세 지역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김해룡과 김문화가 대표적인 지도자로 이들은 2차 봉기 과정에서 임피 북일면 성동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곳은 현재 군산시 성산면으로 북쪽에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와 접하고 있으면서 특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피지역은 동학농민군이 조직을 계속 유지하여 1900년대까지 활동을 이어 나갔다.

여섯째, 2차 봉기 과정에서 옥구지역에서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진호는 옥구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체포되어 옥구관아에서 처형되었으며, 최중여는 1894년 옥구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전주감영에서 처형되었다. 이밖에는 많은 옥구지역 동학농민군들이 참여하였다.

맺음말

이상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임피, 옥구를 포함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군산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대단하였음이 이제야 밝혀졌다. 군산진에서 접주 문규선 등의 활동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산진을 동학농민군이 장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

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피현과 옥구현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이 드러났다. 역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의미가 있다.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활동을 지속해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4.	게재확정일 : 2024. 4. 29.
-------------------	--------------------	----------------------

참고문헌

<자료>

- 「全羅道古阜民亂始初」.
- 「흥계훈밀부유서」.
- 『啟草存案』.
- 『고종실록』.
- 『東學史』.
- 『미나미고시로 문서』.
- 『사법품보』.
- 『선봉진정보첩』.
- 『순무사정보첩』.
- 『순무선봉진등록』.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천도교서』.
- 『天道教會史草稿』.
- 『天道教會史草稿』.
- 『天道教會月報』.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 「甘結(群山)」, 1895.
- 「群山各里明記」, 1894.10.
- 「軍器汁物點關記」, 1894.10.
- 「吏校番記」, 1894.10.
- 「鄉所列名記」, 1894.11.
- 「守城軍名單」, 1894.11.
- 「군산진 철폐 관련 문서」, 1895.
- 「군산진 침사 보고」, 1895.
- 「群山鎭水軍節制使牒報」, 1895.8.
- 「전곽산군수 최건수 문서」, 1894
- 「人吏番把任記」, 1895.3.
- 「匪類囚徒記」, 1895.2.
- 「奴金番記」, 1895.1.

- 「各里明記」, 1895.1.
 「全羅右道群山守城軍座目」, 1895.
 「최건수 군산첨사 도입 문서」, 1894.
 「行群山鎭水軍僉節制使馳報」, 1894.12.
 「訓令(群山)」, 1895.

〈단행본〉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9년 5월, 『군산 동학에 물들다』(특별전시 도록).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논문〉

-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동학학회, 341~375쪽.
 배향섭, 2023,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9~36쪽.
 신영우, 2023,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구성」,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09~311쪽.
 유바다, 2023,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동학농민혁명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47~184쪽.
 이병규, 2021,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60, 동학학회, 447~488쪽
 _____, 2023, 「태인 지금실 김개남 고택지의 문화재적 가치」, 『건지인문학』 36,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03~146쪽.
 정을경, 2023,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5~212쪽.
 조재곤, 2023, 「『홍재일기(鴻齋日記)』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사회의 변동양상」,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13~254쪽.

〈Abstract〉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Lee Byeonggyu*

This essay examines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regions of Gunsan, Impi, and Okgu regions, which were not well known until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e 1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re was almost no movement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regions of Okgu, Impi, and Gunsan.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egan in Gunsanjin (military organization at Gunsan) in June 1894. Starting from this time until October, Mun Kyuseon, the Jwasu (a position at Gunsanjin) of Gunsanjin,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took control of Gunsanjin and carried out their activities. Their activities included taxation and controlling the movement of boats and ships, indicating that Gunsanjin was complet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government of Joseon sought to recover the organization of Gunsanjin by appointing Choi Geonsu as a military attaché in response to the control of Gunsanjin by the Donghak Peasant Army. Choi Geonsu organized the defense militia, thoroughly investigating their numbers as he individually marked every military standard and official. He recovered Gunsanjin from the Donghak Peasant Army through a suppression force under Sung Hayoung and reinforced the defense

* Director of research at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militia to defend it.

Meanwhile, the Impi region was where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the most active among the three regions. Kim Haeryong and Kim Moonhwa, two key leaders, carried out their activities during the 2nd uprising centered around Seongdong-ri, Bukil-myeon, Impi. The Donghak Peasant Army also carried out much of their activities in the Okgu region. Ko Jin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ut was arrested and later executed in the Okgu government office, with Choe Joongyeo also being executed in the Jeonju provincial office.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Army, Gunsan, Impi, Okgu, Mun Kyuseon, Choi Geonsu